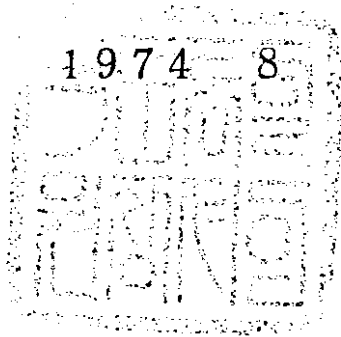


— 紛爭의 단계的 發展에 따른
北方 三角關係를 中心으로 —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8.

研究責任者 : 鄭 炯 珪

目 次

第一章 中·소關係의 段階的 考察과 展望	3
1. 段階的 考察	3
가. 中·소協力段階	3
나. 理念紛爭	4
다. 소련의 軍事的 危脅	10
라. 美·中共 接近	12
2. 現況 分析	19
가. 理念的 側面	24
나. 軍事的 側面	25
다. 政治的 側面	26
3. 中·소關係의 展望	27
第二章 中·소關係와 北韓	30
第三章 中·소紛爭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52



第一章 中·소關係의 段階的 考察과 展望

中·소紛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展望은 어느 누구도 正確히 斷言할 수 없는 20世紀 最大의 수수께끼에 屬할지 모른다.

그러나 外國學者들의 見解를 分析하고 整理해 볼 때 大體的으로 보아 50年代의 協力時代로 되돌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69年의 우쭈리 衝突 때와 같은 戰爭一步前의 最惡事態도 아닌 만성적 現狀 持續이 豫見되는 것으로 大部分 專門家は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中·소關係를 段階的으로 考察하고 專門家들의 見解를 中心으로 中·소關係의 展望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中·소關係가 北韓에 미친 影響을 分析 檢討한 後, 마지막으로 中·소紛爭이 우리의 南北關係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展望해 보기로 하겠다.

1. 中·소紛爭의 段階的 考察

가. 中·소協力段階(50年代 前半)

1949年 10月 1日 政權을 樹立한 中共은 革命의 오랜 期間동안 中共 独自の 路線을 견지해 온 態度를 누구러뜨리고 對소一刃倒政策을 표방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革命과 內戰에서 荒廢해진 中共經濟를 再建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經濟援助가 必要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台灣과 티베트가 未解放인 時点에서 그리고 美·소冷戰體制下에서는 소련의 軍事的 支援이 必要했었기 때문이다.

毛沢東은 政權樹立後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長時日間의 交渉 끝에

美国과 日本을 对象으로 한 中·소同盟条約을 締結하였다.

同時에 經濟的 및 文化的 連繫 및 中共의 新工業計劃의 發展에 대한 3億달러에 達하는 소련의 經濟援助 및 協力이 供与되었다. 이리하여 中·소의 協力段階가 始作되었던 것이다.

第二段階는, 1953년에 始作된 中共의 第1次5個年計劃을 뒷받침하는 援助에서 表現된다. 즉 製鉄所 建設을 包含한 41個의 大規模工場 建設을 위한 機械, 器機 및 技術援助를 供与받았다. 다음해인 1954年 흐루시초프가 引率하는 소련代表團이 北京을 訪問하여 다시 新經濟協定을 締結하여, 既存計劃에 添加하여 15個의 工業設備가 소련의 援助로서 建設토록 되었으며 소련은 새로운 2億 3,000萬달러의 長期借款을 約束했다. 이 경우 가장 重要한 點은, 外蒙古 및 투르케스탄을 經由하여 소련의 아시아地域과 中共을 잇는 두개의 鐵道建設이었다. 하지만 1956年 2月 소련共産党 第20次党大会에 있어서의 흐루시초프의 秘密演說 즉 스탈린批判을 전환점으로 하여, 中·소의 協力段階는 끝난 것이다.

나. 理念紛爭 (1950年代後半期에서 1960年代後半까지)

자고리아教授는 1956年을 基点으로 한 中·소紛爭의 段階的 区分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1) 對立의 溫床期 (1956年~1957年)

非스탈린化 및 陳管内部關係에 關한 問題

(2) 陳管内部關係 및 世界戰略에 關한 論爭 (1957~58年)

陳管内部關係에 關한 中共의 新路線 및 世界戰略에 關한 論爭의 根源

(3) 人民公社에 관한 論争 (1958年~60年)

人民公社 및 共產主義에로의 移行路線에 관한 論争

(4) 分裂一步前 (1959年~60年)

民族解放運動에 관한 論争 (16)

그러면 20次党大会의 「호루시초프報告」를 始發點으로 提起되고 있는 問題點들을 자고리아教授의 『中·소紛争』에 따라서 要約해 보자.

첫째로 20次党大会에서 호루시초프는 소련의 對外政策 및 世界戰略을 宣言하여 平和共存이 戰術的 便宜가 아니라 共產主義의 勝利를 위한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이며 非暴力的인 方法에 의한 社會主義에로의 轉換의 可能性이 增大하였다고 하므로써 激爭不可避論에 관한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도그마를 修正하였다. 이와 같은 불셰비키의 戰略은 軍事力 보다도 社會經濟的 要素의 重要性을 是認하고 經濟力의 成長에 의하여 後進國에 있어서 西歐勢力을 排除하여 後進國을 中立化 하고 또한 資本主義市場을 교란하므로써 社會主義가 勝利한다는 信念을 基盤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호루시초프의 教義上에 啓示에 의하여 20次党大会의 當時에 있어서는 中共은 그 内心이야 어쨌던간에 소련의 路線을 是認했으며 그 後 2年이 經過하여 1958年부터 20次党大会에서의 호루시초프 路線을 攻撃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이때에 있어서도 毛沢東이 주로 소련이 全面戰爭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련의 軍事力과 經濟力, 그리고 西歐의 弱點을 充分히 利用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中共

또는 共產陳嘗에 부과된 소련의 制限이 너무나 크다고 非難하였다.

둘째로 非스탈린化에 관한 問題인데 中. 소간의 眞正한 對立은 호루시초프가 各國 共產黨과의 事前協議 없이 20次黨大會에서 스탈린의 積極的 役割을 부인한데 있다고 한다. 이것에서 미루어 본다면 中共의 目的은 첫째로 호루시초프의 스탈린攻擊을 스탈린 個人에 局限시키고 그 以上 擴大하지 않게끔 하려는데에 있었다. 中共은 스탈린의 過誤를 認定하면서도 그가 偉大한 마르크스. 레닌主義 指導者이며 레닌主義의 敵對者를 물리치고 産業化와 集團化를 遂行하였다고 論한 것은 스탈린主義를 禮贊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도 스탈린主義를 採択한 毛沢東의 立場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中共의 둘째 目的은 毛沢東이 호루시초프의 스탈린主義 暴露를 理論的인 分野에 局限시키고 어찌하여 共產國家의 内部에서 이러한 過誤가 일어났을가를 理論的으로 解明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遠心的인 分裂을 止揚하려는데에 있었다. 그런데 호루시초프는 스탈린의 過誤를 社會主義社會와 無關係하며 따라서 스탈린個人에 關聯된 것이라고 하고 토리앗티는 스탈린의 過誤를 소련制度의 退步라 非難하였으며, 또 東歐의 修正主義者들이 그와 같은 過誤 또는 罪惡은 共產主義制度의 本質的인 變化에 의하여 回避될 수 있다고 論한데 대하여, 中共은 그와 같은 過誤는 社會主義建設에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와 같은 毛沢東의 立場은, 그의 『矛盾論』(1937年)에 立脚한 것이며, 社會는 矛盾의 繼續에 의하여 發展하므로 矛盾의 存在를 否認하는 것은 辯

証法 그 自體를 否認하는 것이 되며 必要한 것은 矛盾을 否認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極少化하며 回避하는데에 있다고 論하였다. 이리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理論的인 指導權을 確立코져 하였다.

세째로 陳營內部關係 및 社會主義路線의 多樣性에 관한 問題이다. 스탈린의 死亡은 陳營內部關係에 있어서도 스탈린主義 종식을 수반했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從來의 一元主義的인 支配 대신에 「社會主義의 多樣性」을 是認하면서 內部的인 團結을 保障할 수 있는 內部關係의 再調整이 要請되었다.

元來 中共은 複數中心主義를 主張하는 토리아타와 內部關係의 再調整을 要請하는 소련 사이에서 中間路線을 取했다. 中共은 複數中心主義를 是認하는 反面에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소련을 센터라고 是認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유고에 대한 스탈린의 統制를 批判했다. 소련·유고간의 論争에 대해 中共은 中間的 立場에서 이 矛盾이 非敵對的 矛盾이며 따라서 基本的인 矛盾이 아니라 意見의 차이라 하고 「基本的인 소련의 經驗」에서 離脫되지 않는 限, 國內問題의 差異는 許容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네째로 人民公社에 관한 것이다. 人民公社 및 共產主義에로의 移行에 관한 中·소의 理論對立은, 해계모니, 經濟, 國內의 革命的 發展의 速度 및 基本的 이데올로기에 관한 對立을 意味한다. 中共의 毛沢東이 後進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建設의 問題를 解決하고

또 이와 같은 中共式 建設路線이 모든 後進國에 있어서 適切하였다고 強力히 主張하였다는 點에서 해계모니 鬭爭을 意味한다.

그리고 人民公社와 大躍進으로 構成되는 中共의 總路線은 急進的인 經濟發展의 概念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經濟學的인 意見對立을 意味한다. 뿐만 아니라 中共이 共產主義社會에 移行하는 소련의 路線이 時間的으로 不必要하게 長時間을 要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熱狂을 冷却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國內의 革命的 發展의 速度에 대한 對立을 意味한다.

또한 毛沢東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變形시켰다고 소련이 主張하는 限에 있어서는, 人民公社 및 共產主義 移行에 관한 中·소의 對立은 基本的으로 相異한 이데올로기의 展望에 관한 對立을 意味하게 된다.

다섯째로 民族解放運動에 관한 것이다. 소련은 地方共產黨보다도 民族主義政府를 支援하고 이데올로기와도 無關하게 經濟的 軍事的 援助까지 提供했다. 그러나 中共은 나세르 및 네루 등 中立主義指導者들에 대한 期待의 失敗에서 소련의 對後進國戰略에 疑念을 품게 되어 1959년에 이르러서는, 「經濟援助와 이데올로기의 一致性」을 強調하고 소련과 正面으로 對立하게 되었다.

1959年 1月 소련共產黨 第21次大會에서 흐루시초프는 從前의 主張에서 一步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理論을 내세웠다. 戰爭은 이미 回避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련은 世界의 指導的 工業國家이며 이에 中共과 기타 共產國家를 包含하면 共產

圈은 工業生産은, 全世界의 工業生産의 半을 上廻하고 있기 때문에 「世界戰爭을 社会生活로부터 除去한다는 것은 實際의 可能性이 있다」고 演說하였다. 즉 소련은 平和共存이 이미 確實히 推進되고 있으며 지난 數年間の 맥밀란 英國首相의 모스크바訪問, 미코얀 第1副首相의 訪美, 닉슨副統領(아이젠하워 行政府當時)의 모스크바訪問 그리고 흐루시초프首相의 訪美와 아이젠하워大統領과의 「캠프. 데이비드」會談 등은 이를 立証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와 같은 一聯의 소련의 西方諸國과의 和解努力은 中共의 심한 反발을 惹起했다.

1958年 8月에서 10月에 걸쳐 金門 馬祖兩島의 政府軍에게 最大의 砲擊戰을 감행한 中共의 속셈과 台灣海峽에 史上最強의 海空軍을 集結케 한 美國의 態度에는 아이로니칼하게도 「소련을 테스트」한다는 意圖面에서는 共通因자를 갖고 있었다. 美國의 아시아協會會長 「케네드 T. 영」은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이 1958年의 台灣危機를 둘러싼 美. 中共間의 大使級會談은 소련으로 하여금 核戰爭의 危險을 걱정하지 않고 美國에게 警告를 發할 수 있는 chances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中共에 대해서도 無條件的 保障의 提供없는 支援의 소를 연출할 수 있는 微溫的 態度를 取하게 했다. 美國과 中共이 外交戰에 호소할 때 소련은 美. 中共 兩國에 대해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었으며 選擇의 餘地를 增大시켜 自身이 이 問題에 말려들어가는 것을 抑制할 수 있었다. 中共은 自體의 「失地回復」을 위한 對美挑戰에 있어서 同盟國 소

런이 限界를 設定하고 있다는 쓰디 쓴 事實을 發見케 되었다』

어떤 論者는 中共이 몇차례 조성했던 台灣海峽危機는, 美·中共 間의 對決 보다는 中·소間의 不和促進에 더 그 意義가 있다고 論했다. 아뭏든 58年의 台灣危機에서 中共은 소련을 完全히 不信, 國防 經濟 兩面에 걸쳐서 소련方式에서 離脫을 뜻하는 「3面 紅旗運動」을 展開케 되었다. 1950年 韓國戰 挑発을 둘러싸고 잉태된 中·소 對立의 씨는, 後半期에 와서 더 深化되었다.

1962年 10月의 쿠바危機에서 노정된 흐루시초프의 「降伏主義 的 態度」는 逆說적으로 63年 8月 8日의 「部分核禁條約」締結로 이르게 했으며 여기에 美·소平和共存體制가 確立되었다. 이 美·소協力體制의 定着化로 中共은 完全히 외톨이가 되어 美·소의 틈바구니에서 孤立無援의 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흐루시초프修正主義」에 대한 挑戰은 激烈했으며 이 挑戰은 64年 7月 14日의 論文 「흐루시초프의 가짜共產主義와 그 世界史的 教訓」이 發表되자, 本格的인 展開를 보였다.

다. 소련의 軍事的 危殆(1960年代 後半期)

上述한 1958年의 台灣危機, 1962年의 쿠바危機는 同盟國 소련에 대한 不信을 자아내는데 머물렀으나 1968年 8月 21日, 소련軍을 비롯한 바르샤바 條約機構 5個國軍의 체코侵攻은, 實質的인 소련의 對中共危殆으로 登場했으며, 그 表現은 侵攻直後의 「社會똥쇼」, 「社會帝國主義」라는 周恩來의 對소非難에서 역

역히 부각된다. 게다가 다음해인 1969년 봄, 여름까지의 中·소 國境衝突事件이 大小 合해 5,000 餘回라니, 國境線 8,000 마일은 一觸即發의 火藥庫로 化했다. 이 時点, 中共의 南部國境가까이까지 北爆의 에스칼레이션이 밀려오고 있었다. 中共은 南과 北에서 完全히 孤立無援의 狀態에 몰입되어, 重大한 安保上의 試練에 맞다들 이게 되었다.

1969년 4월 9日 全大會 開催를 契機로 소련의 「호루시초프 없는 호루시초프路線」에서 完全 自主獨立을 爭取한 中共이지만, 130 餘萬 名의 소련軍이 國境地帶에 雲集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重要 決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dilemma에 빠졌다. 推測컨대 71년 4월의 「핑퐁外交」戰略을 짜기 위해서는 中共黨 高位層에서 數한 論爭이 오고 갔을 것이며, 그것은 닉슨大統領의 訪中宣言 直後 노정된 印포의 失脚에서도 觀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中共天地에서 「對話 즉 交渉에 의한 對決」을 표방한 毛沢東 論文『政策에 對하여』(1940年 12月)와 『重慶交渉에 對하여』(1945年 10月)가 必須文獻으로 指定되어 學習이 強行되었다는 事實에서도 立証될 수 있다. 結局, 中共은 百尺竿頭의 危機에 直面하여, 對美關係改善을 希求케 되었다. 歷史는 아이로니칼하게도 「닉슨저論理」와 「革命的 實用主義」의 握手를 目堵하는 배심원이 되었다.

라. 美, 中共接近과 소련의 아시아 進出(1970年代 初半期現在)
1972年 2月 28日의 『上海共同聲明』은 「兩正面의 敵」
이미지를 뚜렷이 浮刻시켰으며, 소련外交의 基本戰略에 차질을 가져
왔다.

소련外交의 基本戰略은, 長期目標에서 볼 때에는 美國이 여전히
「第1의 敵」이지만, 短期的인 目標라는 意味에선 中共이 「主敵」
이다.

소련은 닉슨의 中共訪問 以前에 이미 三極構造를 念頭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美, 中共接近의 「質的 迅速性」이라는 면에서 誤算은 있
었다 하더라도, 소련은 對外戰略을 根本적으로 變化시킬 必要는 없
었다. 요컨대 美, 中共接近의 質的 迅速性도 소련의 경우는 「刺
戟」정도이다.

하지만 소련은 이 「兩正面의 敵」을 回避하고, 當面한 主敵인 中
共을 견제키 위해서 유럽에서는 自體의 「利益線」 確保를 위한
全歐州安保會議 開催에 열을 올리는 한편 아시아에서는 「對中共包
圍網」을 形成코자 積極적으로 進出하는 姿勢에 拍車를 加하고 있
으며, 實地 極東艦隊의 進出이 현저하다. 이러한 對中共包圍網 構
築을 위해서, 소련은 이미 整地作業을 더듬어 놓았다.

다시 말해서 소련은 1970年 8月의 獨. 소條約에서 表現되는
유럽의 緊張緩和 및 유럽聯合과의 同盟體制 構成 등에서 「餘裕」
를 갖고, 「越南의 정글」에 발이 묶인 美國을 사이드로 물면서

아시아 進出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소련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은, 소련外交의 基本戰略中 短期目標인 中共 견제책에서 나온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소련이 71年에 들어오면서부터 바짝 熱을 올리고 있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은 그실 鄧레스式 對中共包圍網 構築에 그 真意가 있는 것이다.

소련이 短期的인 主敵 - 中共을 包圍하는 網은, 黑海에서 東地中海, 스에즈, 印度洋, 말라카海峽을 거쳐 소련 極東艦隊의 本拠地인 블라지보스토크까지 이른다.

이 기다란 對中共包圍網 構築을 위해 소련은 典型的인 大陸國家에서 戰略島嶼概念에 입각한 海軍勢力擴張이라는 어그렛시브한 印象을 풍기는 世界第2位의 海洋國家로 登場하고 있다.

71年 8月 事實上的 소·印軍事同盟締結, 72年 1月の 방글라데쉬 政府承認, ASEAN의 中立化 宣言之 國家 利用, 그리고 自由中國과의 接近摸索 및 日·소平和條約締結 交渉의 推進 등—— 이 一連의 움직임은, 소련極東海軍의 急増과 함께 對中共包圍網 構築의 多角的인 布石이다.

한편 소련國境의 西南部地域에 隣接하고 있고, 또 中共의 西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印度, 버마, 越盟, 캄보디아 等諸國家에 對해 對한 影響力 擴大는 이른바 「초승달型 戰略」에 입각한 對中共包圍網 構築에 그 基本的인 底意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마리안 P. 커슈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安保目標>에는 몇가지 애드.벌론이 記述되어 있다.

소련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構想이라는 애드.벌론은, 美.中共 接近과 相乘的인 關係에 있다. 1971年 소위 「中國의 해」에 이 애드.벌론도 아시아의 上空에 活潑히 뜨고 있다. 특히 1972年 1月 8日 字 <이스베스피야>의 論說은, 注目할만한 것이다. 즉 71年 11月 27日 ASEAN外相會談에서 採択된 「東南亞中立化宣言」에 言及한 대목이다. 同論說은, 이 中立化宣言을 發展的인 것이라고 評價하고 나서 이것이 아시아集團安保體制的 創設에 貢獻할 것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1970年에 沈黙을 지키다가 71年, 72年에 들어와서 더 極甚하게 애드.벌론을 띄우는 底意는 결국 美国, 中共이라는 「兩正面의 敵」을 回避하여 長短期目標에 立脚한 基本外交戰略을 推進키 위한 考慮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美.中共接近에 對한 對應措置로서 소련이 실시 어떠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지를 簡略히 檢討해 보면,

(1) 印度亞大陸에서의 基盤 確立

美.中共接近으로 外交의 基本戰略에 均裂이 생길 可能性을 내다본 소련은, 그 對應策을 71年 8月의 「印.소平和友好條約」이라는 事實上의 軍事同盟에서 찾았다. 이로서 소련은 印度의 港口에 海軍基地를 確立했으며, 이것은 反射的으로 美第7艦隊의 印度洋 準常駐를 促求하는 事態를 빚어냄과 아울러 中共을 極烈하게 刺戟

하고야 말았다. 中共은 72年 1月 8日字 新華社發信記事『美. 소, 南아시아大陸과 印度洋에서 爭奪戰에 拍車를 加하고 있음』, 同 10日字 北京放送評論『소련修正主義, 印度洋에로의 侵略, 擴張에 拍車』 등 激烈한 非難聲明을 發表하여 소련의 아시아 進出에 警戒심을 強化하고 있다.

(2) 对越盟軍事援助 強化

72年 3月末부터 「불타고 있는 越南戰」은 단적으로 美. 소의 代理戰爭 印象을 強烈하게 풍기고 있다. 71年 10月, 포드고르니議長이 越盟을 訪問하여 ㉠소련의 인도차이나 人民에 대한 全面援助, ㉡소련. 越盟間의 協力關係의 擴大 등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美国이 北京會談에서 越南戰 處理에 關係 中共과 어떤 默契를 보았는지는 의심스럽지만 닉슨이 北京을 訪問했다는 事實 自體가 「닉슨. 독트린」에 立脚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美国이 莫強한 海. 空軍力에 의한 越南化를 推進한다는 基本戰略에서 볼 때 越盟은 必然적으로 SAM 미사일 같은 高性能 对空火力을 確保해야 하므로 소련의 大單位的 軍事援助의 強化는 어떤 面에서는 「닉슨. 독트린」이 불러들인 『트로이의 木馬』이다. 이것은 新勢力均衡論의 아이러니칼한 一断面이며 越南戰處理가 단지 「닉슨-周恩來會談」에서 解決될 수 없다는 推理는 充分히 妥當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中共을 短期的인 主敵으로 삼아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는 소련外交의 基本戰略을 더 究

率化하는 大義名分을 『上海共同声明』은 提供한 셈이다.

72年 2月 20日字〈프라우다〉는 「하늘로부터의 戰爭에스칼레이션은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의 時点에서 行해졌다. 만일 北京이 黙示하지 않았다면 워싱턴은 越盟에 대한 北爆再開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对中共 非難캄페인을 벌여, 「美·中共結託」을 宣傳하고 있으며, 「越南의 運命이 그 人民의 背後서 決定되던 時期는 지나갔다.」고 못을 박고 있었다.

(3) ASEAN諸国 대한 政策

소련은 ASEAN 5個国 대해 実利外交本位로 通商交流, 外交關係樹立이라는 段階的인 關係發展으로 着實히 勢力構築 成果를 올리고 있으나, 窮極的으로 「닉슨·독트린」의 施行促求, 日本勢力의 南進抑制와 더불어 对中共包圍網 構築을 위해서 한발자욱씩 그 整地作業을 꾸준히 推進해 왔다.

(4) 北韓의 対소·对中共等距離

닉슨大統領이 北京에 到着한 21日--그 다음날 北韓外相 許談은, 모스크바와 東구라파行脚 을랐다. 韓半島問題 處理에 있어서 美·中共間에 어떤 黙契가 있었는지의 与否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닉슨·周共同声明」의 文脈 서 볼 때 美国과 中共의 兩強大国家間 서단 韓半島問題는 處理될 수 없다는 印象을 풍기고 있는데, 지난 5月末의 「美·소共同声明」 는 아예 韓半島問題가 拳論도 되지 않은 点を 감안할 때, 역시 아시아問題 있어서 中共을 매놓고는 이야기도 꺼낼 처지가 못된다는 事實을 立

하는 것이 아닐가. 中共이 參加치 않는 아시아의 懸案問題는 「未解決의 章」으로 남는다.

지금 韓半島를 둘러싼 4極構造의 勢力견제 속에서 韓半島問題는 分斷狀態의 現狀凍結로 굳어질 公算이 크므로 소련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라는 애드.벌론立場 서 볼 때 韓半島 對한 소련의 傳統的인 南進政策은 우선 對中共 견제策인 日.소 平和條約締結問題와 깊은 關係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日.소 關係正常化期待라는 軸에서 볼 때 소련은 北韓當局의 이른바 「自主路線」 부채질하여 中共의 對北韓影響度를 가급적 견제하여 最少限度 北韓의 對소.對中共等距離姿勢를 굳히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日.소間의 對話 속에서 日本의 對北韓接近을 더 推進시켜 줄 要因 中의 하나로 登場할 것이다.

(5) 對日本政策

4年半만 東京 서 開催된 「第2次 日.소 定期協議(72年 1月 24日~27日) 그로미코外相이 參席한 것은 소련이 닉슨訪中을 앞두고 아시아情勢 및 中共과의 國交回復 對한 日本側의 意向을 打診함과 아울러 소련의 立場을 伝하기 위해서였다.

이 定期協議에서 소련은 종래 「이미 解決된 것」이라고 主張해 온 北方領土問題 對해서 柔軟한 姿勢를 보이고 平和條約의 締結 交渉을 서둘렀다. 日.中共 國交回復의 움직임이 차츰 強化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 그것이 소련과의 關係를 疎遠케 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가 해서의 어프로치로 보인다.

소련이 日本 對해 가장 憂慮하고 있는 것은 그 基本戰略으로 볼 때 美.日 安保條約의 存在도 아니고 日本軍國主義의 復活도 아니다. 勿論 소련이 日本의 核武裝을 警戒하고 있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日本의 核武裝反對라는 點에서는 美國, 中共하고도 利益이 一致하기 때문에 이 點에서는 共同步調를 取할 수 있으며

따라서 日本의 核武装은 적어도 急速하게는 進展치 않을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

오히려 当面한 問題는 日本의 中共接近이다. 日·中共 國交回復이 日本의 經濟力, 科學, 技術이 中共의 國力增大 플러스 要因으로 登場케 될 것이기 때문. 소련은 極力 日·中共 國交回復의 움직임을 경계했을 것이다. 따라서 日·中共間 齟齬를 박기 위해 소련의 여러가지 形態로 對日外交를 展開하려고 努力했다.

72年 2月 21日에서 24日까지 滿4日間 걸쳐 開催된 「第5次日·소經濟合同委員會」에서는 츄메니油田을 中心으로 한 시베리아開發計劃 日本이 10億달러의 借款을 供與해 줄것 등이 論議되었다 한다. 이 極東·시베리아開發問題 있어서 日本의 資金, 技術을 소련이 순수한 經濟的 次元 서 必要視하는 것도 勿論이지만, 이것을 소련外交의 基本戰略 中 短期目標인 中共主敵論과 매취시켜 생각할 때 充分한 推理가 可能하다. 델레스式 對中共包圍網 構築 있어서 가장 어려운 北쪽고리가 이 日本이라는 點에서 6年만 그로미코가 日本을 訪問했을 때 「아리송한 微笑」 속에서 北方領土問題가 言及이 되지 않았다는 事實을 감안해 본다면, 소련으로서는 自體의 外交戰略을 하나씩 具體化해 가는 過程의 一端으로 對日微笑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것이다.

例컨대 츄메니油田 開發 및 이 石油을 輸送할 送油管의 施設 등은 블라지보스토크 基地를 둔 極東艦隊의 給油를 軍事戰略的인 次元에서 보다 效率化할 것이며, 이것은 相對的으로 8,000 마일 걸쳐 대치하고 있는 陸路의 中·소國境地帶에서의 中共의 軍事力 弱화를 가져올 海域에 의한 對中共包圍網 形成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

2. 中·蘇關係의 現況 分析

中·蘇關係의 現況分析은 73年 8月 25日字 新華社論文「두개의 王朝를 잇는 검은 실」과 하루 뒤인 26日字 프라우다紙 掲載의 알렉산드로프의 論文 「中國指導部の 外交路線의 若干의 基礎的 方針에 대하여」에서 分析해 보기로 한다.

新華社論文의 對蘇非難의 要旨은, 「帝政로마노프王朝와 후·르시초프=브레즈네프王朝는 大로시아의 소비즘과 侵略的인 擴張主義라는 한 줄기의 검은 실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틀리는 것은 後者의 王朝는 「社會主義」라는 은폐의 옷을 입고, 名實공히 完備된 社會帝國主義라는 事實이다.

한편, 알렉산드로프의 論文은 毛沢東, 周恩來의 이름을 몇차례에 걸쳐 들먹이면서, 中共指導部の 反蘇·分裂主義 그리고 「2超大國」理論에 의한 「緊張激化政策」을 猛烈히 非難攻擊하고 있다. 알렉산드로프는 毛沢東主義者의 「主意主義的 路線」을 다음과 같이 非難하고 있다. 「現代의 가장 重要한 問題에 대한 中國指導部の 態度는 社會主義諸國, 國際共產主義運動, 民族解放의 闘士 및 世界의 緊張緩和와 侵略的 帝國主義勢力의 抑壓을 目標로 삼고 있는 모든 平和愛護勢力의 努力에 違反되는 것이다」.

新華社論文과 알렉산드로프論文의 相互非難은 69年 봄의 國境衝突事件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그 熱度를 加하고 있는 것이다.

直接 武力에 呼訴하지 않는 舌戰이기는 하나, 中·蘇論爭의

심상치 않는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舌戰이 最近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強度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蘇聯側에서 볼 때에는 73年 5月の 姬麟飛中共外相의 유럽訪問頃이며, 中共側에서 勢度を 加하기 시작한 것은, 브레즈네프書記長의 美國訪問 무렵이다. 이에 잇다른 全歐安保協力會議 第1라운드의 外相會議 그리고 소련·東歐首腦 크리미아會談 등에서 表示되는 브레즈네프의 「兩面外交」가 積極化되 가는 程度에 正比例하여 中共의 對蘇非難은 그 熱度를 더 한층 加해간 것을 우리는 注目할 必要가 있다.

10.全大會(73年 8月 24日~28日)에서의 周恩來政治報告는 對蘇非難의 總決算이라고 볼 수 있다.

周恩來는 다음과 같이 蘇·社會帝國主義를 非難하고 있다.

「소련修正主義支配集團은 흐르시초프로 부터 브레즈네프에 이르는 이 20年동안에 社會主義國家를 社會帝國主義國家로 變質시켜 버렸다. 그들은 國內에서는 資本主義를 復活시키고 獨裁를 實施하고, 各民族人民을 隸屬시켜 政治, 經濟, 民族의 矛盾을 점차 더 激化시키고 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체코슬라바키아를 侵略 占領하고, 中國과의 國境地帶에 軍隊를 集結시키고 蒙古에 出兵하고, 룬·놀 集團을 支持하고, 폴란드의 勞動者의 造反을 彈壓하고, 에집트에 干渉하여 專門家를 追出당했으며, 파키스탄을 分裂시키고,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轉履活動을 자행했다. 이러한 一聯의

事實은, 새로운 쓰아의醜한 모양과, 그 「입방아에선 社會主義, 實際에 있어서는 帝國主義」라는 反動的 本質을 철저하게 露出시키고 있다. 그들이 나쁜짓과 몰염치한 行動을 하면 할수록, 소련 人民과 世界人民에 의하여 歷史博物館에 보내질 날은 한층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이다.

最近, 브레즈네프背反者集團은 中·蘇關係問題에 대하여, 中國은 世界情勢를 緩和시키는 데에 反對하고 있다느니, 中國은 中·蘇關係를 改善코저 하지 않는다느니, 頻繁히 하찮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도 世界情勢를 緩和시키고 싶다면, 왜 체코나 蒙古에서 軍隊를 撤収시킨다든가, 日本의 北方4島를 返還시킨다든가 하여 誠意를 表示하지 않는가? 中國은 다른 나라의 領土를 侵略 占領하고 있지 않다. 中國의 萬里長城以北을 全部, 소련修正主義에 내놓지 않으며는, 우리들이 世界情勢의 緩和에 贊成하지 않고, 中·蘇關係의 改善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도 된단 말인가. 中國人民은 欺騙당하지 않으며 주저하지도 않는다.

이周恩來의 對蘇非難은 그대로 UN에 飛火되어, 中共代表 喬冠華는 總會에서 周恩來政治報告의 內容을 되풀이 강조했다. 그리고 中東戰事態를 둘러싸고, 中共은 이른바 「2超大國理論」에 따라 맹렬히 소련의 帝國主義的 干涉行動을 공박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한편, 소련의 對中共非難은 前述한 알렉산드로프論文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前後에 걸쳐 맹렬한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73年 8月 25日자 알렉산드로프論文도 실은 73年 7月 16日자 따쓰論評, 8月 7日자 알렉산드로프論文(프라우다紙), 8月 15日 알마·아타(카자크共和國)에서의 브레즈네프演說, 8月 16日자 따쓰論評, 8月 20日자 이즈베스찌야紙論文, 그리고 8月 24日자의 프라우다, 이즈베찌야, 소베츠키야·로시아等の 各紙, 「新時代」紙, 8月 25日의 赤星紙, 月刊誌 곰무니스트 8月 第12号등 一聯의 對中共 非難의 總決算의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共第10全大會 閉幕後 얼마안 있어 開催된 第28次 유·엔總회에서 그로미코外相은 일관된 對中共비난연설을 되풀이하어, 中·소舌戰은 유·엔舞臺로 까지 번졌다.

그러면 이러한 一聯의 中·소論爭의 에스칼레이트는, 一部西方側 專門家들이 우리를 表示하는 第2次 珍寶島事件으로 發展할 것인가. 勿論. 周恩來의 政治報告에도 종래의 「北方으로 부터의 威脅」이라는 表現대신 「社会帝國主義 奇襲攻擊」이라는 보다 強한 警戒論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同政治報告의 中·소關係末尾部分에서 제기하고 있는 「平和共存 5原則을 기초로 한 兩國關係의 正常化」項目과 關聯시켜, 考察해 볼 때, 예를 들면 솔즈베리 등이 거론하고 있는 中·소의 軍事的 對決의 問題設定은 非現實的인 것이다. 알렉산드로프論文의 끝머리 部分에서 引用된 브레즈네프演說句節, 「레닌主義에 對峙하는 思潮로서의 毛澤東主義의 理論과 實踐에 대한 斷乎한 關聯을 對中關係正常化의 用意와 結合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原則的인

文化史的 意味에서 볼 때, 異端의 斷罪는 異教徒審問보다 더 가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주의 概念으로 본다면 소련은, 「産業이 高度로 發展된 大衆消費社會」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近代化概念의 論爭범주에 中·소紛爭의 理念的 側面은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소련의 「리베르만理論」과 中共의 「小兒全工業」은 社會主義的 近代化 即·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路線의 差異點을 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角度에서 中共의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을 둘러 싸고 더 加一層 惡化된 中·소의 理念紛爭을 알 수 있다.

나. 軍事對立的 側面

알렌 S. 화이팅教授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林彪事件의 진수는 對美接近과 對소接近이라는 安保論爭의 結果였다. 하기에 이 安保論爭은 또한 이데올로기의 側面과 여러모로 聯關되어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핑퐁外交의 戰略的 次元」이 立証하는 것과 같이 中共의 對美接近은 長期的인 戰略的 面에서는 對소牽制를 위한 整地作業이었다는 데에 대체로 意見이 一致되고 있다.

69年 한해동안에 세차례에 걸친 中·소國境衝突事件과 그 전해 (68. 8. 21)에 있었던 바르샤바條約軍의 체코侵攻등 諸事態는 毛澤東主義者로 하여금 「이데올로기+安全保障」의 概念을 부각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立場에선, 이른바 「美·中共結託」이라는

次元에서 虚脱感을 맛 보았을 것은 틀림없다. 72年 2月 28日의 「닉슨·周恩来声明」에 나타나 있는 中共의 覆權主義排撃은 対소 牽制를 意識한데서 나온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次元에서 브레즈네프가 주장하는 아시아集團安保体制에 대한 論難은 說明될 수 있다.

하지만 中·소國境에 있어서의 武力增強의 意味內容은, 純粹한 軍事的 次元에서 論議될 性質의 것은 아니고 요컨대, 軍事力을 「바게이팅·과워」로 行使하여 소련이 主張하는 平和共存시스템에 中共을 끌어 들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과워·폴리틱스」라는 國際關係論的 論理에서 解釈하는 것이 尙當할 것이다.

다. 政治的 側面

美·소平和共存体制의 具體化段階와 美·中共의 政治的 和解가 招來한 美·中·소 3極構造가 「레알」한 國際政治의 構造的 論理를 代辯하는 狀況에서 中·소兩國은 그 表現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眞理判定權是非」이건, 「이데올로기+完全保障」이건 間에 이제 그 焦點을 多極構造의 具體的인 展開에 맞출 수 밖에 없는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브레즈네프構想」에 부각되는 「兩国外交의 세일즈맨姿勢」와 「周恩来 디자인」에 表示되는 「現實主義外交」는 아이로칼하게도 「닉슨저論理」의 居仲調整에 의해 相互非難을 되풀이 하면서도, 決定的인 行動으로 나가지 못하는

制約要因을 서로간에 안고 있는 것이다. 「不等辺3角形」에 比唯되는 中·소의 不等辺關係가 短·中·長期的으로 어느 時期에 等辺化 될 수 있는지의 与否에 中·소의 「統制된 対立關係」가 그 向方을 決定받을 것이라는 데에 問題의 焦點이 있다.

3. 中·소關係의 展望

中·소間의 「緊張高調」를 展望한 로버트 W. 바아네트의 所論은 理致에 닿지 않는 것 같다. 即 「中共이 美国이나 日本과 軍事的 性格의 協定을 志向할 움직임」이라는 前提下에 緊張의 銳角化를 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信念」의 次元에서만, 앞으로의 中·소關係의 展望을 觀測한다는 것은 너무나 平板적인 思考方式이다. 「中·소關係는 더 惡化될 것」이라고 展望하는 브제진스키教授의 所論은 적어도 軍事戰略的 次元에서는 理解가 가지 않는다. 예컨대, 「中共의 核戰力の 成長과 相應하여 中共에 대한 소련의 敵意와 憂慮는 그 強度를 더 해 갈것」이라는 展望은 論理的 根拠가 희박한 것이 아닐까? 70年2月 레어드 美国防長官의 年次報告에 의하면 75年頃엔 中共이 ICBM 10 내지 25 棼를 實戰配備한다는 것이다. 이 配備가 完了되면 現在 進入路에 막 들어간 美·中·소의 3極体制는 定着化될 公算이 크다.

바꾸어 말하면 社会体制를 달리하고 있는 美·소間에서 60年代에 美·소平和共存体制를 構築할 수 있었고, 72年5月 SALT 第1 라운드協定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中·소間에도

「第2의 美·소 平和共存体制縮少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社会体制가 相異하고 軍事力의 패리티가 不完全하나마 維持될 수 있다는 事實이 平和共存의 培養土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推論에서 中·소 關係의 「緊張高調 惡化」라는 展望은 論理性을 欠如하고 있다.

다음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性」이라는 展望과 「最少限度의 國家關係改善」이라는 向方測定사이에는 事實上 同一交脈에서 觀測할 수 있는 性格을 지니고 있다. 端的으로 말해서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性은 時間의 템포는 遲遲하나마 궁극적으로 그 行先地를 最少限度의 國家關係改善쪽으로 잡을 것이며, 急轉直下하는 暴亂 變端的인 例로서 戰爭勃發경지 에로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現狀維持的인 慢性的 持續論者」인 피츠제랄드가 例示하고 있는 東·西가톨릭教會의 「大分離」(1054年부터 始作됨)는 現代에 와서는 東·西教皇頂上會談도 가져 和解氣運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中·蘇關係가 이 「大分離」만큼 그 慢性的 持續性을 長期化할 展望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같은 「持續論者」인 도메스 代辯하고 있다. 即 毛沢東死後의 「解決到達希望」을 비추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中·소 關係의 展望은 이미 이데올로기次元에서 論議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點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國家 대 國家의 次元에서 그 行先地를 閥議받을 것 같다. 이러한 平和共存에 입각한

關係正常化의 呼訴와 呼応은 실제로 지난 72年 봄 毛沢東과 브레즈네프 演說에서 오고 갔다.

그리고 前述한 周恩來政治報告와 알렉산드로프 論文에서도 아직은 가늠다란 실오라기의 意思表示이기는 하지만 分明히 平和共存 理論에 立却한 國家次元에서의 關係改善問題가 言及되었든 것이다.

第二章 中·소 紛争과 北韓

以上에서 分析 檢討한 中·소紛争의 段階的 考察 과 現況分析을 通하여 中·소와 北韓과의 關係를 考察하여 보겠다.

1

韓國동란 이전에는 中共은 北韓을 蘇聯의 위성국으로 고려하여 大使도 平壤에 파견하지 않았었다. 2次大戰이 종결된후 中共軍 團하에 있던 2천여명의 八路軍部隊가 北韓으로 入北하였으나 압록 강 도강후 곧 武装解除를 당하고 北韓에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武亭, 金料奉外 여러 延安派 사람들이 政治에 参与하였으나 蘇聯軍 占領下에서 金日成을 위시한 蘇聯派들과 경쟁하기 어려웠다.

中共 지도자들이 韓半島 問題에 대해서 蘇聯 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1949年 12월에 있는 毛沢東의 모스크바 방문때였다. 스탈린·毛會談은 10週間이나 계속된 어려운 회담이었다. 이 회담 때 金日成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이 있고 스탈린, 毛沢東, 金日成 三者間의 한국전쟁 발발에 관한 비밀회담이 있었으며 中共 지도자들은 蘇聯의 韓國侵略案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歷史的 사실은 다르다.

中共에 있던 五万의 韓國人部隊가 1949年 末과 1950年 初에 北韓에 돌아와 北韓軍에 편입이 되었다. 中共으로서는 蔣介石과의 戰爭이 끝난고로 10万 이상의 韓國人部隊가 必要없었다.

中共政權樹立後 및달이 안되어 毛沢東과 周恩來는 1949年12月부
 터 10週間이나 모스크바에 머무르며 스탈린과 交渉하였으나 스탈린
 • 毛・金間의 南侵의 共謀는 없으릿 같다. 이때 中共指導者들은
 蘇聯으로부터 巨額의 차관문제의 東支那 정도에 관한 中・蘇 共同
 管理問題 등에 관하여 관심이 컸다. 또한 國內的으로 中共이 中
 國大陸을 完全히 支配하지 못하였던 故로 中共으로서는 韓半島에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여유가 없었다. 이때의 水滸명의 電氣 배분
 으로 인하여 北韓・中共關係는 惡化되어 있었다. 이 時에 蘇聯의 伸
 裁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中共은 韓國戰의 介入함으로써 시끄러운 國內問題를 國外로 돌린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나 中共의 安保面
 에서 볼 때 蘇聯의 全韓半島의 軍事的 占領은 中共에게 위협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50年 蘇聯이 旅順・大連을 위지하여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스탈린은 高橋을 통하여 만주를 中
 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政策을 쓰고 있었다. 과거 日・滿戰爭때 日
 本이 韓國을 占領한 후 서서히 만주를 침략하게 되었고 北中國을
 占領한 歷史的 사실을 볼때 毛沢東이, 蘇聯이 같은 共產主義 國家라
 고 하여 全韓半島의 占領을 贊成하였을리 없다.

스탈린, 毛沢東과의 10週間의 격론 끝에 全韓半島를 占領하여 의용
 軍, 만주, 韓國으로부터 中共에게 壓力을 가하기 위하여 韓國동란을
 일으켰을 가망성이 크다. 6. 25 발발 당시 中共은 北韓을 蘇聯의
 위성국으로 고려하고 毛沢東은 한국전쟁 발발 計劃이나 실천에 대

해서 전면 發言權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스탈린의 戰略은 全韓半島를 蘇聯의 위성국으로 만들고 만주와 韓國을 이용하여 中共에게 壓力을 加할 려고 한 것이다. 스탈린 이 예상하지 않은 유엔軍의 參戰과 國軍의 北進으로 인하여 中共軍 이 韓國戰爭에 參戰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스탈린의 戰略이 美軍 과 中共軍의 싸움을 벌여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스탈린은 구라파에서 失敗하고 韓國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의 생각으로는 韓半島를 赤化시켜 日本의 再武裝을 미리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때 美 國은 日本과의 平和條約을 準備하고 있었고 日本을 再登場시킬려고 하였다.

8월 중순경에 韓國戰爭에서 北韓軍의 戰勢가 不利하게 되었을 적 에 스탈린은 中共을 利用하기 시작하였다. 韓國戰이 발발할 때부 터 蘇聯은 軍隊를 直接 投入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蘇聯軍事顧問 團은 中共 將士를 派수하였다. 蘇聯軍의 介入이 美軍과 충돌하여 世界 3次大戰의 일어날 可能性이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中共군을 이 용할려고 생각하였다. 8월의 蘇聯政府는 「쿠즈마·페레브린코」中 將을 北京으로 보내 金日成이를 顧問하기 위하여 北韓에 中共군을 파견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 中共이 軍隊를 파견한다면 蘇聯 은 武器援助를 担当할 것이 라고 하였다. 毛沢東은 스탈린의 제안 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였고 考慮中에 있다고 회답하였다. 스탈린은 특히 金日成에게 中共에 政식으로 軍事援助使節團을 보내라고 지시

하였다. 金日成은北韓 노동당 中央副委員長 許가이를 團長으로
 內務相이며 中共指導者를 團에 卷 亞려진 朴一禹를 團長으로 9
 月初에 北京으로 보냈다.

毛沢東은 黨政府, 軍부의 最高指導者들과 며칠동안 韓國派兵에 대
 하여 討論하였다. 그러나 의견이 들로 갈라졌다. 黨과 政府指導
 者들은 慎重論을 띄고 建國以來 1年도 못되어 最大強國과
 싸우는 것은 冒險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中共을 再建하기 위하여
 平和가 必要하다고 주장하였다. 劉小奇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런 반면 軍部の 主戰派인 彭德懷와 林彪는 韓國에 軍隊를 파견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만약 미군이 北韓을 占領하게
 되면 미국과 蔣介石은 반드시 滿州를 武力으로 侵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中共은 北韓으로부터 使節團을 받고 周恩來를 모스크
 바로 보냈다. 처음 스탈린·周 회談에서 中共의 韓國戰 介入이
 조용했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中共 내에서는 韓國에 派兵할 것을 결정한 以後 毛沢東
 이가 周恩來에게 지식하여 스탈린과 또 다시 상의하여 韓國戰에
 派兵하는 것에 대하여 合意를 보았다.

위에서 보는 것같이 中共은 蘇聯의 壓力에 의하여 韓國동란에
 介入한 것이 아니고 中共자신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介入하였다.
 韓國戰에 介入함으로써 戰爭이 滿州로 擴大될 可能性도 있었고,
 미국이 원자탄까지 쓸 가능성도 있었다.

100萬의 大軍으로 韓國戰爭에 介入함으로써 전통적인 中國의 이

해관계가 韓半島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中共軍과 北韓軍으로 구성된 聯合司令部에서 中共軍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서서히 蘇聯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中共 勢力이 강화되었다. 특히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北進하였을 적에는 金日成 자신이 만주 通化로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中共에게 유리하였다.

中共은 1950年 여름부터 韓國戰 介入을 시작하여 10月中旬에 參戰하게 되었다. 수십만 中共軍의 韓國戰 介入으로 인하여 中·蘇는 北韓에서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北韓의 南侵은 스탈린과 金日成에 의한 것이었고 中共은 그 計劃에 參與하지 못하였다.

1949年末과 1950年初에 5萬의 韓國人 軍인이 中共으로부터 送還되었으나 그것은 中共內에서 戰爭이 끝나고 經濟的으로 負擔이 되었기 때문에 本國으로 送還한데 지나지 않았다.

中共은 派兵의 조건으로써 北韓軍을 증속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作戰權을 위시하여 모든 것이 中共軍聯合司令部의 의하여 戰爭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金日成은 敗戰의 결과로 滿州 通化로도 나가 있던 때라 中共의 참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美國의 제의를 받아 한국전쟁 1週年을 기하여 蘇聯은 休戰에 동의하였다. 그것은 金日成을 구제하기 위한 同時에 中共軍의 北韓內의 侵透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스탈린은 韓國情勢에 대하여 잔뜩 보고한 「스티코프」大使를 파면시키고, 혹은 참모총장 姜健의 수임으로 前 소련軍 砲兵少領 南日을 참모총장으로 등용하고 金日成을 감지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스탈린이 韓國戰爭을 발발시키고 유엔군이 평양으로 北進함에도 不拘하고 비행기 조정사, 엔지니어 外 5천명가량의 군사고문단 이외에 적면적으로 도와주지 않은데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金日成은 中共軍을 배경으로 北韓에서 蘇聯派를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이 戰爭에서 失敗하게 되자 黨과 軍部内에서 그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이때 蘇聯派 許가이는 副首相 兼 外相 朴憲永에 接近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은 蘇聯派와 国内派의 도전을 막기 위하여 中共派와 연합하여 政權을 유지하기 위하여 蘇聯依存에서 中共으로 전환하였다. 中共軍의 北韓駐屯과 스탈린 死後의 「크레믈린」内 權力鬭爭의 틈을 타서 金日成은 許가이와 朴憲永을 숙청하였다.

다른 한편 스탈린의 死亡은 金日成에게 不利하였다. 보잘것 없는 金成柱가 金日成將軍으로 된 것은 스탈린과 베리아의 德이었는데 그들이 사망하자 「크레믈린」에는 金日成 지지자가 없어진 셈이다.

특히 1956年 2月 20次 共產黨大會에서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은 金日成에게 決定的인 타격을 주었다. 「후르시초프」의 個人崇拜 비판으로 金日成의 獨裁體制가 흔들렸고 蘇聯의 金日成에 대한 비판은 1956年 4월에 있는 北韓 第3次黨大會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이大會에 參席한 蘇聯代表 「브레즈네프」는 北韓의 重工業 위주의 經濟計劃과 金日成 獨裁體制의 강화를 비판

하였고, 金日成의 대안 蘇聯의 비난을 계기로 蘇聯派 朴昌玉, 中共 派 權昌益 등이 연합하여 1956年 여름 金日成 政權打倒를 시도 하였다. 金日成은 사택을 수습하기 위하여 中共軍司令部와 비밀로 만나 蘇聯打倒를 위하여 中共軍의 援助를 요청하였으며 中共軍의 도움을 받아 蘇聯派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사택을 주지하던 「호루시포프」首相은 蘇聯과 中共이 共同으로 介入하여 金日成의 獨主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中共軍을 믿고 蘇聯派를 철저히 수칭하는 데 成功했다. 金日成과 中共軍의 의하여 蘇聯 勢力은 北韓의 지 계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中·蘇紛爭 양측은 이미 1956年 北韓에서 작트기 시작한 것이다.

1956년부터 시작된 蘇聯의 平和共存論에 관하여 北韓은 中共派를 들었다. 北韓의 蘇聯 一辺倒 政策에서 中共派으로 기울어지게 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첫째로 北韓은 蘇聯이 中共과 같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구동란때 積極 働き 않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北韓이 갈망하는 동맹은 美軍의 南韓駐屯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中共 또한 美國의 다면보조 및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美軍을 제일의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蘇聯의 美軍과의 平和 政策이 金日成에게 不利하였다. 「호루시포프」 자신이 蘇聯은 한국에서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金日成은 武力을 쓰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그러나 中共首相 周恩來는 주한미군이 아시아 平和에 위협이 된다고 하였다.

1960年 中·蘇紛爭이 점점 격화됨에 따라 金日成에게 조정할

여유가 생겼다. 蘇聯과 中共이 다 北韓을 꺾이려고 努力하였다. 中共은 1億弗 이상의 차관을 주었고 蘇聯은 2億弗에 가까운 차관을 北韓에게 면제해 주었다.

中·印 국경 紛爭과 古巴 미사일사건을 계기로 하여 北韓은 中共 路線을 따르게 되었다. 中·印 국경분쟁에 관하여 北韓은 中共과 긴밀한 連絡을 취하여 中共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다. 1962年 흐루시초프는 미국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하여 古巴로부터 蘇聯 미사일을 철거하였다. 이것을 보고 金日成은 北韓의 방위가 蘇聯에 의하여 보장될 것이냐 의심하게 되었고, 蘇聯이 세계적 차원의 국가 利益을 犧牲시켜가며 北韓의 安全保障을 責任지지 않으리라고 断定하게 된 것이다.

1964年 10月 「흐루시초프」 政權이 무너지고 「브레즈네프」 政權이 들어선 후 蘇聯은 惡化된 北韓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中共과 가까워 짐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北韓도 蘇聯과 화해를 원하였다. 蘇聯이 단절한 經濟援助를 中共은 北韓에게 제공할 수가 없었다. 蘇聯의 원조중단으로 인하여 北韓의 7個年 經濟計劃이 3年 더 연장되었다. 1965年에 韓日國交正常화가 됨에 따라 日本과 北韓間의 貿易이 주춤해졌다.

1965年에 시작된 美國의 越盟 북쪽擴大로 자신도 위협을 느꼈고 美國과 對決하기 위하여 대공미사일, 최신행 전투기 등이 必要하였다. 中共은 이러한 무기를 北韓에 공급할 수 없었다. 越南戰이 격화됨에 따라 金日成은 이 기회를 계기로 越盟에 對한 中·蘇의

統一戰線을 호소하였으나 中共은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中·蘇의 總盟지원은 北韓의 再南侵 의도와 直接的인 關係이 있기 때문에 北韓은 越南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였다. 中共이 總盟을 積極的으로 돕지 않은데 대해서 北韓은 불만이였다.

또한 中共의 北韓內政干渉을 막고 安保問題에서 中共에만 의지할 수 없는 처지였다. 北韓이 원하는 駐韓美軍撤收 문제도 中共이 가까운 장래에 철회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韓·日國交가 正常化 됨에 따라 美·韓·日間의 軍事同盟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고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軍事援助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北韓·蘇聯 關係가 개선됨에 따라 北韓·中共 關係가 惡化되었다. 文化革命의 紅衛兵의 變모를 통하여 蘇聯便으로 기울어지는 北韓을 비난하였다. 中共 곳곳에서 反金日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였다. 어떤 변모는 金日成이 쿠데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고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변모는 中共의 우정을 배신한 金日成을 제거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文化革命이 북한으로 변질까 봐 文化革命에 대해서 言及을 회피하였다.

1969年2月에는 中共은 北韓을 「조선수정주의 집단」이라고 지적하고 金日成은 철저한 反革命修正主義分子라고 하였다. 1968年 末과 1969年3月에는 만주국경에서 양국간의 統戰戰이 일어났다고 한다. 中共·北韓·관계가 대단히 긴장되어 中共의 東北地方에 거주하는 韓國人들이 帰國한 일이 있었다.

1차적으로 북한은 日本에 接近하여 한·일 관계를 惡化시키려고 하였다. 中共의 對日接近 방법을 본받아 日本 東京「미노네」知事를 비롯하여 많은 日本상인과 言論人을 북한에 招請하였다. 현재

中共은 三週間이나 「시아누크」를 淸양에 보내 金日成을 설득하였었다. 中共은 미·중공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득하였을 것이다. 국제적 인정을 받는 데도 유리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1971年7月15日 닉슨 대통령의 中共 방문 발표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처음에는 美·中共 接近을 그리 탈감케 생각하지 않았으나, 北韓의 第一의 敵인 美國이 中共과 和解하는 것은 북한외의 外交 및 統一政策(武力統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닉슨대통령의 中共방문 발표가 있는 후 三週間이나 침묵을 지켰다.

여름 中共을 接近하게 만들었다. 金日成의 생각에는 蘇聯은 北韓에 對항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푸에블로」난 북 사건만 보더라도 蘇聯과는 대조적으로 中共은 적극적으로 북한을 必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中·蘇 交渉時에 蘇聯이 北韓을 利用한 무력충돌 사건을 볼 때 그의 對蘇 全面戰의 있어서 북한의 協助가 을 제지 하였다. 中共으로서는 1969年3월에 있는 「다만스키」 북 사건만 보더라도 蘇聯과는 대조적으로 中共은 적극적으로 북한에 對항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푸에블로」난 이 원하는 武力統一을 지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日本·美國의 壓力 만큼 中共을 接近하게 만들었다. 金日成의 생각에는 蘇聯은 北韓을 利用한 1969年11월에 있는 닉슨·사포 共同성명은 북한으로 하

北韓은 對日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 外交전체가 中共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는 느낌이다.

中共이, 북한이 必要한 것은 戰略面에서만 아니라 아데올로기면에서도 必要하다. 金日成은 스탈린주의자이고 敎條主義者이며, 현 蘇聯체제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蘇聯은 美·中 和解를 이용하여 북한을 蘇聯편으로 전향시키려했으나 失敗했다. 1972年 2月 닉슨大統領 中共방문때 「브레즈네프」는 許淡北韓外相과 회견하였고 同年 4月에는 「레닌훈장」가지 金日成에게 주었다.

現在의 추세로는 북한이 中共一刃倒 政策을 취하고 있는 느낌을 주나 北韓·中共間에도 難點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再南侵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美軍의 南·주둔으로 본다. 그러나 中共은 美軍의 南·주둔을 원하고 있다. 만약 南·주한美軍이 철수케 되면 日本은 核武器를 포함한 재무장을 서둘러야 될 것이다. 이것 또한 中共의 입장에서선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만약 中共이 金日成을 積極的으로 도와 한국통일을 시킨다면 中共의 對日·美·蘇 관계가 惡化될 것이다. 蘇聯과의 對決에서 美國과 日本의 協助가 必要한 中共은 金日成 지도하의 한국통일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그러나 基本的으로 北韓은 中·소의 對立關係에도 不拘하고 蘇聯

과 中共의 兩國에 대해 友好關係를 維持·發展시키고자 하는 基本 方向에는 變함이 없으며, 이러한 態度는 언필칭 北韓의 「自主路線」의 對外的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그 傾斜度는 親中共쪽으로 기울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蘇聯의 關係도 友好的으로 持續코져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對中·蘇等 距離外交」에서 각기 實利를 追求코져 하는 속셈에서 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北韓의 對中共 密着度에 비해 모스크바와의 關係가 상당히 微妙해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것은 결국 소련이 「두個의 韓國論」에 입각하여 對韓國 接近을 試圖코져 하는데 대한 北韓의 反應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北韓이 對中·소等 距離外交라는 基本方向에 입각하면서도 北京·平壤間의 密着度를 더 돈독히 하고자 努力하는 姿勢를 몇가지 事例分析을 通하며 對蘇關係와 比較하여 檢討하기로 하자.

첫째, 1971年 7월에 平壤에서는 蘇聯 및 中共과의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0周年記念」行事가 各各 開催되었다. 蘇聯에서는 7月 5日 마주로프黨中央政治局員兼 1副首相을 團長으로 하는 大型代表團을 北韓에 파견하였으나, 北韓은 自己側 代表團을 모스크바에 파견치 않았다.

이에 反하여 中共·北韓간엔 大型代表團이 相互 交換되었다. 即 中共에서는 7月 10日 李先念黨中央委員兼副首相, 李德生 黨中央委政治局候補委員兼中共軍總政治部主任등이 인솔하는 大型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했다. 그리고 北韓에서도 金仲麟 黨政治委員兼中央委秘書를 團

長으로 하는 大型代表團을 中共에 파견하였다.

둘째, 71年 11月8日의 中央核實驗成功을 祝賀하여 金日成이 直接 20日에 毛沢東, 周恩來에게 祝電을 보냈던 것에 비해서, 소련의 自勵感星間 스테이션이 처음으로 火星에 軟着陸을 成功(71.12.2) 시킨데 대해 金庠三 工業科學院長이 賀電을 보낸것은 對照的이었다.

以上 두가지 事例만 보더라도 北韓이 基本方向에서는 對中·소等 距離外交라는 論理에 따라 中共과 소련 兩國에 대해 계속 友好關係를 維持코저 하면서도 그 「웨이트」設定에 있어서는 역시 北京 平壤間의 密着度를 더 굳히고저 努力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表現해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소련이 中共에 비해 對北韓影響度에 있어서 第2位에 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다음으로 中共·北韓의 密着關係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美·中共接近에 대한 北韓의 肯定的인 評價와 經濟協力協定·軍事援助協定을 각각 締結했다는 사실이다.

金日成은 71年 8月6日 시하누크公 歡迎平壤市民群衆大會席上에서 이른바 「白旗論」을 표방, 中共側의 勝利로 美·中共接近을 평가했다. 그런데 注目할만한 사실은 이 評價직후인 8月15日과 9月6日에 각각 北韓이 中共하고 經濟協力協定과 軍事援助協定을 체결했다는 點이다.

요컨대, 北韓이 美·中共接近에 대해서 積極的인 評價를 表明해 준데 대한 代價로, 北韓側이 中共으로 부터 具體的인 軍事的 保證을 받아-왔을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와 實利追求의 相互關聯性」을

北韓의 金日成은 이른바 「祖國統一 5大綱領」을 내 놓은데 대하여, 中共은 各報 新華社通信과 人民日報를 통해 公式으로 金日成의 主張에 대해 全幅的인 支持를 表明했다. 즉 周恩來總理는 말리國家首班이며 政府總理인 「무쵸·프라오레」大領이 73年6月24日 저녁 北京에서 개최한 答禮宴會에서 다음과 같이 表明했다. 「金日成은 어제의 중요한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대한 전체조선인민의 강력한 念願을 반영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方針과 다섯가지 방안을 내 놓았다. 北韓政府의 이 새로운 方針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조선반도에서의 緊張狀態의 가일층 緩和를 진심으로 도울 것이다. 중국정부와 인민은 이 받기를 열렬히 환영하고 확고한 지지를 표시한다.」

이의 反해 소련은 파쓰通信으로 알막하게 「軍事的 對峙의 解消」 緊張狀態의 緩和」등의 관해 評價없이 報道한 것에 불과했다.

즉 73年6月26日 소련駐在 平壤大使가 金日成首相을 訪問, 金日成의 演說全文을 傳達했는데, 金日成은 관례적인 支持만을 보냈을 뿐임을 그 文派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注目을 끄는 事項은 周恩來의 熱烈한 支持聲明에는 보이지 않는 句節이 있다. 金日成은 이렇게 덧붙였다. 「국통에서의 安全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음으로 北韓의 「5大綱領」에 대한 報道機關의 引用面에서도 中·소의 反應度를 점칠 수 있다. 前述한 周恩來의 支持聲明을 비롯하여 그 後 계속 개최된 行事(例; 7·4 共同聲明一周年記念; 中共·北韓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締結 12 週年記念宴會 등)에서 「5大綱領」에 대한 熱烈한 支持가 줄곧 表明되고 있는데, 이 報道는 中共의 公式報道機關인 「新華社通信에 의하면」하는 前提가 에누리 없이 붙어 있다. 이에 反해 前述한 코시긴首相의 擔當한 支持聲明을 비롯하여 소련에서 開催된 여러 論評과 行事(例; 레닌共青機關紙 「꿈소물쓰까야 프라우다」의 論評; 소련交通部第1中央臨床病院에서 개최된 朝鮮人民과의 聯帶性集會; 朝소親善協會創設 15 周年記念集會 등)에서 거론된 報道는 한결 같이 「모스크바에서의 報道에 의하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다만 北韓 「로동신문」(73年 7月 17 日자)은 5大綱領을 支持하여 프라우다紙가 論評을 發表했다고 하면서 「다쓰通信에 의하면」하고 시작되어 있다. 그런데 「로동신문」에 轉載된 프라우다紙의 論評도 그 前後文脈으로 보아 前述한 「軍事的 對峙狀態解消와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緩和」등에 관한 73年 4月 10 日자 「5個項方安」을 主로 強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의 「5大綱領」에 대한 이러한 反應의 明暗度는 대충 우리가 짐작한 대로이다. 그것은 73年 2月 달부터 北韓이 巡訪外交를 1個月餘에 걸쳐 展開했는데, 그 때의 狀況을 分析해 본 結果 대 체로 豫測이 可能했기 때문이다.

소련과 중공에 대한 巡訪外交는 2月9日부터 3月19日까지 許 外交部長이 인솔했었다. (이 밖에 소련에는 金東奎勞動党中央委黨秘書, 中共에는 黃壯 最高人民會議議長이 들렸음). 이때 許 一行은 中共에서는 「駐韓유·엔軍에서 유·엔의 帽子를 벗기는」 問題등 北韓의 일관된 主張을 全幅적으로 支持받아 共同聲明을 表明했는데 소련에 가서는 共同聲明을 얻어 내지 못했다는 事實(이 밖에 東歐圈에서도 체코를 除外하고는 모두 共同聲明을 받아내지 못했음)에서도 이미 우리는 中·소의 反應度를 짐짓 豫想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73年 4月10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2次會議에서 北韓이 소위 「軍事的 對峙狀態解消와 南北 사이의 緊張狀態緩和」 등에 관한 「5個項方案」을 世界各國議會와 政府에 發送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北京에서는 즉각 이를 支持한다는 政府回答이 있었지만, 모스크바의 경우 公式聲明은 없었고 다만 소련의 雜誌에 실렸다는, 그것도 北韓의 中央放送報道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6月23일의 金日成提案 즉 「祖國統一 5大綱領」 천명에 대한 朝日新聞의 모스크바 特派員報道를 引用해 보면, 소련의 北韓 및 韓國에 대한 態度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杉田(스기다) 特派員은 모스크바 23日 記事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소련은 도이취問題에서 東西獨並存의 길을 認定했는데, 北韓의 경우는 東獨만큼 소련의 影響力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韓半島問題에 「獨逸方式」을 強要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련은 北韓의 立場을 原則的으로는 支持하면서, 한편 韓國하고도 接觸을 가지므로써 「南」에 대한 影響力을 強化하여 事態의 歸趨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소련은 北韓의 黨·政府要人과의 緊密한 接觸과는 달리 最近 현재해 진 것은 소련의 韓國에 대한 「門戶 開放」의 움직임이다. 5月末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演劇藝術協會 會議에 韓國의 演劇人이 招待되었으며 또한 8월에 모스크바에서 開催될 「유니버시아드」大會에도 韓國選手團이 參加했다.

이러한 새로운 소련·韓國關係의 展開는 韓國側으로 본다면 對共 産圈接近을 試圖하는 朴大統領政府의 「外交的 成果」임과 동시에 소련으로서도 韓國에 대하여 유연한 姿勢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해야 할 點은 北京·平壤간의 密着度도 막상 國際情勢의 現상에 비주어 볼때 「벨리제이트」 한 面이 보이기 시작 한다는 사실이다. 北京政府는 72年2月の 닉슨 訪中時에는 北韓의 許 外相이 韓國에 제의한 「8個項 平和統一方案」을 全幅的로 支持한다고 천명했다. 이 「8個項 平和統一方案」에는、韓·美相互防衛條約의 廢기가 明確히 插入되어 있는데, 73年 2月の 第2次 美·中共共同聲明에는 일체 이것을 不問에 붙이고 있으며, 美軍의 台灣으로 부터의 撤收만을 決定한 것 뿐이었다.

요컨대, 北韓의 「5大綱領」에 대한 소련과 中共의 反應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中·소對立關係라는 軸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國際權力政治의 力学關係라는 次元에서 이것을 풀이해야

할 것이다. 하기야 中·소對立關係의 軸도 소련, 中共의 對內的인 政治的 意味内容面을 일단 사상한다면, 基本的으로 國際權力政治의 多極化構造의 具體化現象이라는 力学關係에서 相互交互 離脱하는 立場에서 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련과 中共의 韓半島問題에 대한 實質的인 態度를 檢出하는 分析들도 당연히 이 「多極化構造의 具體化現象」이 될 것이므로 이 觀點에 입각해서 中·소의 對韓半島政策의 實質을 파헤쳐보는 態度가 北韓의 對中·소關係를 검토하는데 必要하다.

결국 「5大綱領」에 대한 上述한 中·소의 反應은 「多極化構造의 具體化現象」이라는 「틀」에서 보아야 한다는 國際政治的 感覺의 必要性을 提起케 한다. 이 多極化構造時代에 存立한 우리는 「브레즈네프構想」이나 「周恩來디자인」 그리고 「닉신지論理」 등에서 表出되어 나오는 國家利益追求의 外延 속에서 握手를 交換하는 「아리송한 微笑들」을 자주 본다. 소련과 中共의 對韓半島政策도 이러한 力学關係의 次元에서 觀測해야 客觀性을 謁 수 있다. 이제 平和共存의 論理的 構造는 事實상 中共이 對소非難用으로 삼을 利用物은 되지 못하고 있다.

問題는 바로 여기에 있다. 北韓의 世界保健機構加入問題에서 소련이 시사하고 있는 「두개의 韓國」觀은 美·소平和共存體制라는 큰 틀에서 觀照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것의 具體的 表現일진대 韓國의 「6.23平和統一外交政策聲明」이나 이에 맞서는 北韓의 「祖國統一5大綱領」 宣明에 대해 그 어느쪽을 강력히 支持한다는

김새를 보이지 않고 다만 「緊張狀態의 緩和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정도의 따쓰通信發 記事는 소련의 韓半島政策에 대한 基本姿勢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端的으로 말해서 「유럽의 現狀固定化政策」의 延長線上에서 中·소關係의 國家次元에서의 平和共存論理를 追求하고자 하는 것이 소련의 基本的인 아시아의 志向인 것이니, 이러한 소련의 世界戰略的 構造에서 볼 때 소련은 「韓半島의 分斷制度化」를 다룰 수 밖에 없다는 論理가 된다.

요컨대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對中共戰略의 一環으로서 策定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對中共牽制策인 日·소平和條約 締結 推進問題와 깊은 聯繫을 맺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日·소 關係正常化期待라는 軸에서 볼 때 소련은 中共의 對北韓影響度を 加급적 견제하여 最少限 北韓의 對소, 對中共等 距離姿勢를 굳히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日·소間의 對話속에서 日本의 對北韓接近을 더 促進시켜 줄 要因의 하나로 登場케 될 것이다.

다음 中共의 反應은 앞으로 계속 北韓側 主張의 全幅的 支持라는 一辺倒政策으로 나갈 것인가. 적어도 소련에 대한 核戰力の 相對的 패리티가 이루어질 時點에 가서는 그리고 美·中共의 和解가 具體化될 段階에 가서는 그렇자만은 않을 것이라는 外交構造의 論理를 中共外交에서 檢出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美·中共의 政治的 和解라든가 日·中共國交正常化 등이 長期的인 戰略的 비전面에서는 對소牽制라는 次元에서, 그리고

短期的인 戰術的面에서는 国内 經濟建設의 需要對象國創出이라는 立場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한 林彪事件이 미스테리로 그치지 않고 中·소對立關係라는 外在的 要因의 內在化라는 局面에서 理解가 된다면, 앞으로의 中共外交는 종래에도 그랬드시 「革命的 宣傳」의 象徵操作은 表面的으로는 되풀이 될 것이나, 그 實狀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行動化, 具體化시킬 立場에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周恩來디자인은 여전히 重要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中共外交의 向方은 좋던, 꺾던 平和共存外交論理를 採択하여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問題는 이 平和共存外交의 論理的 構造를 受容할 수 밖에 없는 中共이 가까운 時日內가 아니라도 소련과의 國家關係次元에서의 關係正常化希求를 어떤 方式으로 具體化시키고자 할 것이냐 하는 點에 있을 것이다.

4

中·소와 北韓關係의 展望을 考察하려면 韓半島의 戰爭狀態終結措置 즉 「休戰協定の 平和協定化」라는 中共의 基本的인 念願과 소련의 「現狀態로서의 韓半島의 分斷制度化追求」라는 두가지 主張의 相融點 分析이 重要한 鍵잡이가 될 것이다.

基本的으로 北韓의 對中·소政策은 그 「自主路線의 對外的 表現」에서 노상 主張하는 것과 같이 中共과 소련 兩國에 대해 友好關係를 維持·發展시킨다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겠으나 「親中共密着度」

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모스크바·平壤」의 關係는 당분간 疎
遠해 질 수 있는 諸要因을 包容하고 있음을 觀察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北韓의 對소政策의 展望은 北韓이 「5大綱領」에서 표방하
고 있는 韓半島內的 問題解決의 패턴을 그대로 응고집할 때 점점
더 어려움을 안일 것이고 따라서 모스크바·平壤의 關係는 漸次
疎遠해져, 그 갭이 커갈 것이 豫測될 수 있다. 그것은 소련의
對韓半島戰略이 「現狀으로서의 韓半島의 分斷制度化」에 있는 것
만큼 「두개의 韓國論」을 모스크바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外交論理的 歸結때문이다.

다음 中共과 北韓의 關係는 이데올로기의 側面이나 實利追求的
側面에서 모두 지금 現在로서는 密着되어 있기 때문에 「北京·
平壤間의 密着度」는 短期的인 次元에서는 더 強化되어 나갈 것
이 展望된다.

✓ 하지만 韓半島에서 戰爭狀態終結措置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역시
北韓과 中共사이에는 赤裸裸한 實利追求面에서 「커뮤니케이션」이
疎遠해 질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할 수 있다.

駐韓美軍의 完全撤収의 時期가 만약에 온다면 「真空地帶의 埋沒
必至論」에 따른 소련의 傳統的인 南進政策遂行과 日本의 大陸政策
企圖로 韓半島가 소련이나 日本 影響圈으로 完全히 陷入되는 것을
中共은 두려워 하고 있다. 中共의 立場에선 韓半島는 소련보다
훨씬 더 자체의 安全保障을 위해서 齒補車關係에 있다고 切感하고

있다. 이러한 次元에서 이른바 「平和로운 環境地帶 韓半島」의 浮刻을 國家利益追求上 中共은 念願한다는 論理的 展開는 充分히 可能하다.

아무튼 北韓의 自主路線에 表現되어 있는 「對中·소等距離外交」 이 基本政策方向의 具體的인 追求는 中·소紛爭과 「美·中·소 3 極體制의 相互交互 離脫作用」으로 말미암아 「苦된 旅程」을 밟을 것임은 異論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第三章 中·소紛争이 南北關係에 미치는 影響

「北韓은 解放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中蘇라는 強大國의 比護下에 살아왔으며 그들과는 密着되어 있는 實情이라 하나 1950年代 中반기부터 表面化된 中蘇紛争은 그 影響下에 있는 北韓으로 하여금 매우 困難한 立場에 놓이게 하였는데 한때는 蘇聯에 偏重 또는 中共에 偏重 하는等 右往左往하면서 自主路線이라는 것을 標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自主路線은 中蘇紛争에 限해서만 中立的 立場을 取한다는 뜻이지 中蘇에 依存的인 路線임을 否認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分明히 理念的인 面에서는 中共에 經濟 및 軍事實利的인 面에서는 蘇聯에 치우치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蘇聯 中共 北韓이라는 三角關係에서 볼때 같은 共產主義體制라는 點에서는 共通分母이나 北韓을 中心으로 中蘇間의 見解差異는 深한것으로 보인다. 이는 蘇聯과 中共의 世界戰略上의 異見으로서 美國과 日本에 對한 各己 立場이 다른데서 起因하는 것이다」

中蘇가 北韓과 密着되어 한반도에 直接的 間接적으로 큰 影響을 行使하고 있는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므로 우리로서는 이에 對한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이 中蘇紛爭의 惡化속에서 격렬한 反應과 影響을 받은것에 비해서 韓國의 反應은 완만한 편이었다.

韓國이 中蘇紛爭 초기에 보여준 一般的인 反應은 韓國戰亂과 冷戰체制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反應의 性格은 中共과 蘇聯은 同一한 共產體制임으로 근소한 理念論爭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나 언젠가는 中蘇가 타협할 것이라는 一般的 관측이었다. 共產政治體制에 속하는 國家간에는 基本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전문기관이나 一般에서 中蘇紛爭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돌연적인 1969년 3월 2일에 우수리江의 다만 스키섬(珍寶島)에서 中蘇가 군사충돌을 하면서 그 이래 8월까지 계속 우수리江이나 아무르江上에서 中蘇양군이 武力충돌한 시점에서 부터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中蘇紛爭의 影響은 一次的으로 北韓의 問題로 韓國으로서는 直接的인 影響權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中蘇紛爭이 中蘇양국의 軍事力 충돌이후에는 韓國에 두가지 間接的 影響을 끼쳤다고 본다.

하나는 北韓의 배후에서 中蘇軍事力의 충돌은 상대적으로 韓國에 대한 군사적 壓力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최소한 南韓과 北韓의 對立이라는 政治的 觀點에서 北方

삼각관계의 政治的 對立은 南北에 心理的인 안도감과 일종의 자신
을 던져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北韓의 北方경제에서 中蘇가 武力충돌이 可能하다는 점은 確實히
北韓이 南部경제선인 38선에 대한 현상에 대해 군사적 측면이
아닌 政治的 관심을 갖게 한 동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中蘇紛爭이 北韓에 미친 「쿠손」이 間接적으로 南韓에 影
響을 끼치므로 첫째는 軍事的 壓力의 경감과 政治的 心理的 壓力
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8년의 프에블로사건 및 EC121 격추사건을 中心한 北韓의
孤立的 立置 그리고, 38선의 緊張을 통하여 中蘇紛爭에 対応하려
던 政策이 失敗한後 1969년의 中蘇武力紛爭은 38선의 긴장이
아니라 現象維持로 發露하는 계기의 한 요소가 되었고 이러한
北韓의 關心轉換이 南韓에 「心理的」인 안도를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根本的인 轉換이 南北韓關係에 直接 間接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影響을 끼쳐왔다고 본다. 다음 그 몇가지 문제점만을
보기로 한다.

北韓(金日成)은 1961년에서 1966년에 이르기 까지 諒解공
격을 하면서 中共의 理念과 鬪爭目標에 一方的으로 가담으로써 타
격을 받은 것은 1960년 8월에 決定하였던 北韓의 경제7개년
計劃이었다. 事實上 1953년 休戰後 本格的인 戰爭復旧事業과 經
濟的 出露을 그 經濟計劃의 內容으로 하고 있었다. 그 첫째단에

서 消費財(최소한의)와 후반에서 重工業에 重點을 두면서 工業과 農業의 近代化의 기초를 마련하려 했던 經濟計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必須的인 요소는 「蘇聯의 원조」였다. 蘇聯은 1961年 이 計劃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1961 ~ 1967年 間에 걸쳐 蘇聯의 北韓 7個年經濟計劃을 支援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貿易 및 經濟協力協定에 조인하였던 것이기도 하였다.

이 北韓 경제 7개년計劃이 失敗한 큰 理由는 주로 北方三角관계 破壞의 主因이었던 中蘇紛爭의 격화에서 北韓이 「후르시초프」對 毛沢東간의 理念紛爭에서 公開的으로 中共측에 가담함으로써였으며 이에 蘇聯이 經濟 7個年計劃에 對한 支援約束을 撤回한데서였다. 勿論 蘇聯支援約束의 撤回 또는 約束不履行은 經濟的 측면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963年 모스크바는 5백대이상의 蘇製 제트機의 部品과 가솔린 供給까지 중단한 것이어서 결국 戰爭能力에 까지 그 影響이 미치게 된것이다. 北韓은 이 經濟 7個年計劃을 결국 3個年을 연장하여 1970年에야 겨우 完結할 수 있었다.

1970年代에 들어서 北韓은 北韓의 經濟計劃과 軍事적 自立에 기초가 될 「經濟 6個年計劃」(1971~1976年)에 이미 돌입하고 있다. 北韓은 1960年代에서 中蘇紛爭에 어느 一方에 政治的 가담을 함으로써 經濟計劃과 軍事計劃을 망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이 범한 도그마적 과오로 인한 1960年代의 經濟的 失敗에 비하여 南韓은 1960年代에 예상할 수 없었던 經濟的 비약을 하게 된 것을 인식한데서 온것이라고 볼수있다.

✓ 中蘇紛爭에서 「政治的 관심」이 결코北韓의 지위를 상승시켜 준 것은 아니며 1960年代의北韓政策의 모험적 성격은 그 主失敗의 원인이 「政治的 관심」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南北韓의 經濟計劃이 對決할 듯한 구조를 띠고 있음은 명백하다. 南韓의 第三次五個年計劃과 北의 경제六개년計劃의 對決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中蘇紛爭과 關聯된 緊요한 점은 北韓이 北方三角關係에서의 政治的 凍結이 經濟對決에서 必須的인 것이며 中蘇紛爭에 對한 政治的 關心의 포기는 곧 南韓과의 政治的 對決 보다는 經濟的 對決에 그 關心이 履行되면서 「經濟的 對決」의 패턴 구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南北關係에의 經濟的 性格으로의 變化는 平和共存 또는 三八線의 軍事的 凍結 또는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메카니즘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美中共 및 美蘇頂上會談을 통하여 韓半島의 現狀凍結 政策이 구체화 되고 있다. 北韓은 中蘇紛爭을 통한 中蘇關係의 여하에 불구하고 앞으로 中蘇에 對한 經濟的 政治的 依存性 없이는 北韓은 存立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

北韓은 中蘇紛爭과는 關係없이 中蘇양국이 모두 美國과의 競爭的인 多極政策에서 中蘇紛爭의 基원이었던 平和共存論爭은 사라졌으며 金日成의 「韓半島의 軍事統一」 또는 「解放」이라는 理念的 지주가 허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重要한 점은 北韓이 必須的으로 中蘇양국 모두에 依存않으면 그 存立이 위태로와

진다는 데서 北韓도 中蘇의 平和共存理念의 實際的 展開을 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中蘇紛爭이 노골화하고 北韓이 中共에 기울어질 때인 1963년에 蘇聯은 北韓에 軍事援助까지 단호히 거부한 사실은 그 依存性의 冷嚴한 측면을 말해준다. 가령 北韓이 「政治的 自主」가 可能하더라도 최소한 中蘇 어느한쪽의 軍事的, 經濟的 원조없이 現狀態로 보아서 北韓이 말하는 軍事的 자위나 經濟的自立은 極히 困難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金日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며, 여기에서 一般的이나마 「三八線의 現狀凍結」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現在 韓半島를 支配하고 있는 現狀凍結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北韓이 말하는 自主路線의 등기는 어디까지나 中蘇紛爭에 말려들어가는것을 피하려는데서 나온 것이며 中蘇에 對하여 一定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北韓의 獨立的 性格을 유지하려는 데서 나온것이다.

北韓의 「自主路線」은 과거에 있어서 中蘇에 對하여 「完全한 依存」에서의 離脫을 말해주는 것이다. 金日成이 스스로가 「完全한 依存性」을 말해주듯이 國民學校의 교실에 「마야콥스키」의 사진뿐이지 우리의 것은 없었다고 한데서 엿볼 수 있다. 中蘇紛爭이 金日成 集團으로 하여금 「自主路線」 또는 朝鮮民族에 對한 자각을 결국 강요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金日成이 자기의 「自主路線」에 민족주의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看做할 수는 없다.

9 韓國戰亂體制가 지속된 오늘날까지 北韓은 韓半島統一에서의 中蘇의 지원(依存)에 의한 軍事統一을 기도하였으나 中蘇紛爭으로 기인한 依存脫避의 강요는 北韓이 이를 民族문제라는 각도에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韓半島에는 두개의 嚴格한 「民族主義」概念이 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北韓의 共產「民族主義」와 南韓의 전통적인 「民族主義」간의 문제로 民族主義의 概念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南北關係에의 새로운 전개는 南韓現狀凍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상이한 입장에서 克服하려는 것이 現狀凍結이란 二重적機能을 하고 있는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한 것이다.

北韓은 中蘇紛爭과 이에 기인한 中蘇양국의 對北韓政策의 變化에서 그 依存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北韓의 政治的 目標이자 經濟的 目標에서 특히 經濟的 特性은 앞으로의 目標가 첫째 軍需産業의 完成 둘째 消費産業의 發展이라는 기본목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軍需産業의 完成」에는 고도의 기술이나 材料가 必要하다. 蘇聯이 韓半島에서 北韓이 모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상 高度의 軍需産業에 必要한 技術과 材料를 供給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점에서는 美·中共間의 聲明에서

밝힌 「韓半島의 緊張緩和」약속에 따라서 中共이 「軍需産業의 完成」에 지원을 할리 만무하다. 또 能力도 여유도 中共에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消費産業의 發展」이라는 점에서 보면 現在 北韓이 南韓과의 經濟對立에서 최소한 충족시켜야 할 消費産業이 必要하다. 그러나 消費産業의 지원은 經濟構造上 中蘇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다.

北韓은 中蘇紛爭의 依存한계를 특히 經濟的 측면에서 日本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 하고있다고 본다.

日本の 資本과 技術은 事實上 北韓의 두가지 目標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선의 대상인 것이다. 中蘇依存의 한계에서 기인한 北韓의 對日接近은 최근 金日成의 日本人士들과의 회담에서 역력히 찾아 볼 수 있다.

「中蘇紛爭으로 인한 對立으로 韓半島에서의 「現狀維持」를 中共이나 蘇聯이 바라게 되었다는 점에서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韓半島에서 軍事的 對決의 「安全弁」(Safety Valve)으로 形成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中蘇는 최소한 반대않고 있으며 이를 事實上 外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이점에서 北韓, 蘇聯, 中共間의 三角關係에서 北韓이 최종적으로 依存할 勢力이 蘇聯이나 中共이나 하는 점은 南北韓關係 全體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태여 가져야 한다면 北韓은 確實히 現시점에서는 軍사적인 측면에서 蘇聯의 北韓軍에 대한 상

당한 兵站적 補給없이는 지탱할 수 없으며 美國의 核抑制力이라는 면
면에서도 蘇聯이 최종적인 北韓의 依存國이 될 것이다.

그러나 中共에서 항공기의 다량생산과 어느정도의 核開發이 진전
된다면 北韓의 蘇聯依存度가 흔들릴 것임은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中蘇의 韓半島에 대한 현상동결 政策은 北韓
에 壓力이 되어 「現狀維持」를 해야할 입장이라고 본다. 또한
北韓은 최소한 經濟計劃의 진전을 위하여서도 南北關係의 실질적인
발전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現狀」을 타파할 政策은 쓰지 않으
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要컨대 北韓이 中·蘇紛爭의 틈바구니속에서 提唱해온 「自主路線」
을 어떤 方向으로 展開할것인가 하고 問題, 즉 恣意的인 軍事的
緊張을 高潮시킬것 인가 아닌가에 따라 南北關係는 至大한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다.